

## 40장. 유다로 돌아간 예레미야와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

40-44장은 유다에 남은 백성의 죄악과 혼란을 기록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어려움에도 참여한다.

### 1. 라마에서 풀려난 예레미야 (40:1-6)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이방인인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여호와와 말씀의 청종하지 않고 그분께 범죄한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이방인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피정복민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느부사라단의 말을 듣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다랴에게 가서 그 백성과 함께 남는 길을 택한다. 예레미야를 구원하겠다는 여호와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에서 본다.

### 2.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 (40:7-12)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그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은 자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고 천명하고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추수를 넉넉하게 마무리하였다.

### 3. 요하난의 충고와 그다랴의 거절 (40:13-18)

요하난과 군대 장관이 그다랴에게 나아와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 왔음을 알려 주고 자기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 40장 익힘 문제

1.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예레미야가 풀려난 곳은 어디입니까? (1절)
2. 예루살렘 성에 재앙이 임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벨론 사람은 누구입니까? (3절)
3.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어떠한 길을 택하였습니까? (6절)
4. 1)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  
2) 그는 어디에서 남은 백성을 모아 다스리며 여름 추수를 넉넉하게 마무리하게 하였습니까? (10-12절)
5. 1)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3-16절)  
2) 그다랴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16절)